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291명

전국 생존자 2400명·여성 131명...평균 90대
“日 사죄·배상 받기 위한 정부 노력과 전승 절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광주·전남지역에는 291명 있으며, 평균 연령대는 90대 중·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3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생존자는 2400명으로 여성은 131명이다.

광주의 경우 67명으로 이중 여성은 8명이다. 전남은 224명 중 여성이 7명이 생존해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386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252명, 충남 235명, 서울 231명, 경북 216명, 경남 185명, 충북 11명, 부산 106명, 인천 101명, 강원 100명, 대구 82명, 울산 22명, 제주 15명, 세종 11명 순이다. 이중 여성 생존자는 지난해 149명

에서 18명이 줄었으며 경기 23명, 서울 17명, 경남·부산 15명, 전북 10명, 대전 8명, 충남·충북 6명, 강원 5명, 대구·인천 4명, 경북 2명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평균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90대 중후반, 여성은 90세 초반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140명에서 2021년 1월 현재 2400명까지 줄어, 해방 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1만7148명에서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 2015년 9937명, 2016

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지난해 3140명이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지난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피해자들의 아픈 경험이 후대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전승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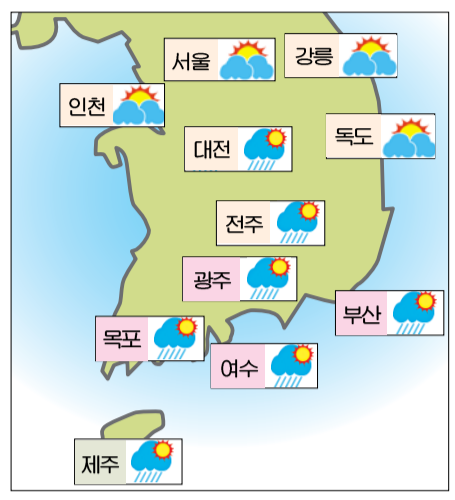
5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해상 6일과 남해서부해상 6일~7일에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주간날씨

날짜	4일(목)	5일(금)	6일(토)	7일(일)	8일(월)	9일(화)
날씨						

기상안전관측국편의이 131(광주기상청)

지역	날씨	강수량	
		오전	오후
광주		3~11	20~80
나주		4~11	30~80
담양		3~10	20~80
순천		3~11	30~80
영광		4~11	20~80
목포		6~10	30~80
무안		5~11	30~80
진도		6~10	30~80
여수		6~11	30~80
광양		5~12	30~80
고흥		6~11	30~80
완도		8~10	30~80
해남		5~10	30~80
장흥		6~11	30~80



■ 서·남해 날씨

해역	풍향	풍속	파고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22~32	0.5~1
	먼바다	동-남동	25~40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동-남동	22~32	0.5~1
	먼바다	동-남동	32~47	1.5~2.5

순천소방서 생명의 빛 project 실시

순천소방서는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시 요구조자의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빛 Project’를 실시했다.

순천소방서는 거동불편 환자가 다수 있는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달 28일까지 관계자와 LED 랜턴 제작 필요성·배치방안 등을 논의한 뒤 LED랜턴을 구획별로 설치하고, 안내문·실협영상 배포하고 스티커를 부착해 의료시설 내 환자들에게 LED랜턴의 용도를 안내했다.

/순천=주순익 기자

‘대면예배 강행’ 안디옥교회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도사와 함께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재판 넘겨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준근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치러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여파로 광주에서 1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A·B씨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목사와 전도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주관하는 필수 요원으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지침상 필수 요원은 20명까지 모일 수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B씨가 당시 방역 당국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치른 점,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무관하게 대면 예배를 주관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 14일 열린다.

한편 안디옥교회 일부 목사는 지난해 9월 6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 활동을 금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한동주 기자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등 광주시 10곳 적발

광주시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린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일제점검을 벌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10건이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5개반 17명의 단속반을 투입, 노래연습장과 ‘뮤비방’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8건은 주류 판매, 1건은 주류 보관, 나머지 1건은 뮤비방과 유사한 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등이다.

광주소방본부 ‘생명 살리는 역무원 손길 만든다’

6월까지 20개 역 역무원 160명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협업체 3월부터 6월까지 20개 역 역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내 심정지 상황 발생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년간 광주에서 심정지환자를 발견한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비율은 12.7%로 전국 평균 23.1% 대비 10.4%p 낮아 일반인 대상 CPR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범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 지하철 역무원의 경우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2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발견자로서 역할이 중요한 만큼 우선 교육대상으로 선정했다.

역무원의 심정지 교육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지하철 역사 내 열차 내부·화장실 내부·계단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심정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된다.

또 3개월간의 교육 후 6월에는 역무원 자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개최해 교육결과를 평가한다.

이정자 시 구조구급과장은 “시민들이 실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당황해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초기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김대중센터 MICE 사관학교 출범

내일 개강...실무형 MICE 인재양성 요람 기대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가 전시·컨벤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KDJ 전시·컨벤션 아카데미(KDJ)를 공식 출범, 오는 5일 개강한다.

3일 DJ센터에 따르면 직속 MICE 인재양성 사관학교가 오는 5일 개강식과 함께 첫 수업에 들어간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 거점 5개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사관학교에서는 상반기 15주 동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50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센터 인직원과 국내 MICE 전문가들의 전시, 컨벤션, 축제이벤트 등 MICE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 강의와 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동기 기자

농어촌공사 ‘기능 확장’ 수리·수문설계시스템 무료개방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의 기능을 대폭 확장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학술연구와 민간기업의 기술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는 보다 고도화된 공사의 수리·수문 전문기술력을 담은 ‘K-HAS’를 민간업체와 학계 등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공사가 100여년 이상 축적한 수리·수문 분야 설계 기술을 전산화한 것이다. 수문량 분석과 수리해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김도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